

2012. **9** vol.112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tel 02.774.3488 fax 02.776.7879 e.mail obos@catholic.or.kr
발행인 김용태 편집 커뮤니케이션팀 www.obos.or.kr

한마음한몸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달 한 줌의 쌀 예수님 뭍으로



저는 캄보디아 부스라 마을에 사는 '츠메이'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매일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도 놀고 싶지만 집안일을 돕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일주일에 단 하루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한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뭍으로 한 줌의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면 그 정성을 모아 지구촌 빈곤국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한 마을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후원안내

● 우리은행 1005-684-077777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 ARS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여러분의 헌미헌금은 지구촌 곳곳에 전달되어 쓰여집니다

나눔이 가져오는 큰 변화



▲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17살 소녀, 사비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17살 소녀, ‘사비이’입니다. 제 어머니는 결핵과 위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술 후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저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아버지는 제게 새어머니와 3명의 동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아 저희 가족은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캄보디아 메리놀회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 살기 시작하면서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직업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곳 어린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로, 청소년 모임의 팀장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치료로 한쪽 눈은 실명되었고, 무릎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 꿈은 에이즈에 감염

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을 펼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 행복한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출생 이후 빈곤과 질병으로 인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구촌 곳곳에서 이들의 잠재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한 마을 종합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 한마음한몸 ‘한 마을 종합 발전사업’ 지원현황

캄보디아

- HIV/AIDS 감염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위한 의료서비스, 식량, 주거, 취업기회 제공 지원 (협력기관 : 캄보디아 메리놀회)
- 장애인들에게 직업기술훈련 및 언어교육 기회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기관 : 캄보디아 예수회 봉사단)
- 몬돌끼리 지역 18개 마을 ‘72개 마을 개발운영위원회’ 지원 (협력기관 : 캄보디아 카리타스)

미얀마

-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협력기관 : 국가적 특수성으로 비공개)
- 소수민족 지역사회 개발 위한 식량확보, 보건위생교육, 빈곤아동교육 지원 (협력기관 : 국가적 특수성으로 비공개)

케냐

-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은 케냐 북부지역 수자원탱크 설치 및 농업훈련, 영양개선 사업 전개 (협력기관 : 케냐 카리타스)

네팔

- 카스카지역 슬럼가, 산골빈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진행 (협력기관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멕시코

- 뽀토이찬 지역 아동들의 영양개선 및 여성들의 자립활동을 위한 빵공장 운영 (협력기관 : 순교자들의 선교수녀회)



홍보대사 탤런트 이인혜(데레사)씨, 국제청년자원활동단 '띠앗누리14기' 몽골 동행기

작은 나눔의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본부는 국제청년자원활동단 띠앗누리 14기를 7/25(수)~8/8(수), 몽골 중북부 유목민문화센터로 파견했습니다. 띠앗누리는 몽골 현지 청년들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부의 홍보대사 탤런트 이인혜(데레사)씨가 7/25(수)일부터 8일간 동행, 몽골에서의 따뜻한 체험을 기억하며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기고문을 전해주셨습니다.



▲ 본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만난 몽골의 어린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홍보대사 이인혜씨 (사진 좌로부터 두번째)

‘피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아프리카를 택해 참다운 사랑을 실천했던 슈바이처 박사. 박사의 철학정신을 기억하며 저는 국제청년자원활동단 띠앗누리 14기와 해외 자원활동을 떠났습니다.

공식일정은 본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장 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위기에 놓인 유목민을 대상으로 교육·생활을 지원하는 중북부 유목민문화센터(몽골지목구 운영), 공부방·여학생 기숙사 운영을 통해 몽골의 청소년과 여성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메리워드청소년센터(예수수도회 운영), 빈곤으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몽골 빈곤 청소년들을 위해 급식과 교육공간을 지원하는 CCM 도서관(예수수도회 운영) 등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국제 자원활동이나 하루 100원모으기 후원 등의 작은 나눔들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까?'하는 가슴 속 의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곳의 청소년들은 도서관과 공부방, 그리고 기숙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내일을 꿈꾸고 설계하며 자신과 국가와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친척을 넘어, 그리고 나의 국가를 넘어서 사랑의 경계선을 넓히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신앙인들의 사랑나눔이 몽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는 계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관 및 빈민촌 방문을 마친 저는 단원들과 함께 **중북부 유목민문화센터**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곳은 ‘환경재해로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초원에서 삶을 개척하는 선진화된 유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소’라는 인솔자의 설명을 듣고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보람있는 것인가를 깨달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을 나르다 빼앗긴 허리와 온몸에 묻은 소똥들로 단원들의 유쾌한 비명소리는 날로 커졌지만,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동네 주민들과 소와 말들의 생명수인 우물가는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부서지고 낡았던 유목민문화센터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중북부의 평화가 탄생했습니다.

작은 나눔들이 모여 한 마을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며 이 꿈같은 변화의 현장을 체험하게 해 주신 현지 신부님과 수녀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10기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양성 1단계교육' 수강생 모집

- 대상 자원봉사경력 5년 이상의 자, 시설 및 단체 실무자
- 일시 9/20~11/22, 매주 목요일 14시~17시
- 장소가톨릭회관 426-1호
- 교육비 15만원
- 문의 02.727.2248 www.esvc.or.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센터 성당에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주일마다 센터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출

소자, 수용자 가족, 범죄피해자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일시 9/23(일), 10/14(일), 11시
- 장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지하 성당

월례미사에 초대합니다.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미사를 봉헌 하고 있습니다.

- 일시 10/8(월) 10시20분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환경사목위원회

2012년 하늘땅물벗 2단계 교육

- 대상 하늘땅물벗 1단계 교육 수료 활동가, 그 외 관심자
- 일시·장소 9/18(화)~10/30(화), 매주 화, 10시 ~12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참가비 6만원(교육자료집, 생태영성피정 포함)
- 문의 02.727.2272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참여문의

1599-생명살이(304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서 예쁘게 디자인된 환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환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 | |
|-------------------------|--------------------------|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수퍼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혜어 |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4호점 서울 성수동 (주)이피코리아 |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6호점 서울 필운동 (주)계문사 |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10호점 서울 수서동 (주)NB건축사사무소 |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운정신과의원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16호점 대전 도룡동 (주)명산 |
| 17호점 대전 만년동 (주)장여대가 | 18호점 서울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 19호점 서울 수유동 토마토도시락 | 20호점 강원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
| 21호점 전남 여주시 화정동 푸른농장 2호 | 22호점 전남 여주시 소라면 푸른농장 중림점 |
| 23호점 서울 신도림동 태영프라자약국 | 24호점 충북 청주시 고리의 영어학원 |
| 25호점 서울 동선동 하티헤어 | |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7

▲ 51,744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2년 9월 7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One-Body One-Spirit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개인상담 및 유가족 자조모임

상담신청 및 문의 02.318.3079 사이버 상담 www.3079.or.kr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서강현 (2011.08.07생) 父 서완석/ 母 김지숙,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민하 베로니카 (2011.07.30생) 父 김태윤/ 母 이윤지,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봉하연 (2004.05.30생) 父 봉재훈/ 母 손유미, 3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권승은 (2012.05.02생) 父 권규현/ 母 오성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오범석 라파엘 (2011.08.11생) 父 오세경/ 母 김민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다인 (2011.08.08생) 父 정 옥/ 母 이현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나나 마리스텔라 (2006.12.07생) 父 조형섭/ 母 송지경,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백준하 안토니오 (2011.09.05생) 父 백인호/ 母 최경심,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서준 (2012.02.18생)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서연 (2009.09.10생)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효진 (2009.06.23생)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석 (2011.10.18생) 父 김정훈/ 母 서보라,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주하 (2011.08.11생) 祖母 장미일 로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지아 그라시아 (2010.08.05생) 父 홍윤기/ 母 지아임,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정원 (2011.08.17생) 父 박성중/ 母 정지영,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송예은 에스텔 (2009.09.03생) 父 송재욱/ 母 이혜진, 12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태훈 (2012.05.02생) 父 안중혁/ 母 임소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은우 (2012.05.19생) 父 박찬진/ 母 서정미,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정리우 마리아 (2011.04.27생) 父 김대연/ 母 정지현,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생) 父 조남현/ 母 김자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노유선 베르나데트 (2012.07.20생) 父 노지형/ 母 김대연,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서영 미카엘라 (1996.09.08생) 父 조훈/ 母 송주은, 129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형준 가브리엘 (2002.06.14생) 父 조훈/ 母 송주은, 129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도윤 (2010.02.23생) 父 이현상/ 母 정애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배유나 소피아 (2009.08.27생) 父 배중성/ 母 김형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나소윤 세라피나 (2010.08.10생) 父 나상오/ 母 구상희,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유시영 힐데가르트 (2011.08.13생) 父 유현성/ 母 차세연,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준우 (2011.03.25생) 父 이주훈/ 母 류경하, 1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예은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혜순, 백일반지 1개(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준 (2009.07.01생) 父 김 용/ 母 이지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지우 도미니코 (2011.08.31생) 父 김은한/ 母 장양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도균 (2012.07.02생) 父 박형원/ 母 이하연/ 祖母 박영리 안나,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